

대학도서관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 연구*

A Research on a Model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Academic Libraries

장 덕 현 (Durk Hyun Chang)**

목 차

- | | |
|------------------|---------------------|
| 1. 서론 | 2.3 장서개발정책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전자자원관리정책 구성요소 도출 |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1 구성요소 도출 |
| 2. 이론적 배경 | 3.2 구성요소 검증 및 순위화 |
| 2.1 국내외 연구동향 | 4.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 |
| 2.2 전자자원의 정의와 유형 | 5.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전자정보원의 비중 증가, 그리고 이용자 요구의 변화 등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자원관리정책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자자원의 정의와 유형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필요성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위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전자자원개발정책 가이드라인과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이 실제로 수립, 공개하고 있는 전자자원관리정책 사례, 그리고 관련연구들을 바탕으로 구성요소를 선정, 취합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the library's master plan that provides library's long/short-term plans. It also informs the community of the library's commitment in collection development. However, in Korea, libraries which maintain such a policy are not yet to be easily found. Furthermore, due to increasing importance of electronic resources, libraries are gradually required to have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policy that reflects a change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odel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policy in academic libraries. It derived and verified more than thirty preliminary elements from literature and case studies. The element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as a result, the selection criteria gained the highest marks. The findings can be applied for selecting the elements of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the university library and reorganizing them so as to meet its peculiarities. This study, finally, presents a model that includes a guideline for the university library which will establish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키워드: 장서개발, 장서개발정책, 전자자원관리, 전자자원관리정책, 대학도서관, 장서관리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Policy,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Management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1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25-142,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4.12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은 도서관의 목표와 소장 장서의 범위를 정의하고, 정보자원 개발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유지·보완하고, 자료 선정의 원리와 기준, 그리고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와 저작권 등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 등을 명시하여 성문화하고 대내외에 공개하는 문서이다. 많은 도서관들이 장서개발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문서로서의 장서개발정책을 게시하고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 도서관협회나 국가 대표도서관에서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도 장서개발정책을 보유한 곳이 많지 않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정책을 게시한 곳은 더욱 드문 것이 현실이다. 2011년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6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입안하여 발간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들이 그 모형을 따라 자체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입안하고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료수집

지침 이외의 장서개발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디지털 정보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였다.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 통계(2012)에 따르면, 1992-1993 기간의 경우 전체 도서관 예산 중 전자자원에 사용된 예산은 3.6%에 불과하였던 반면, 2009-2010 기간에는 이 수치가 67%로 증가하였다. 즉, 전체 자료구입비의 2/3을 전자자원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학도서관의 전자자원 구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이용자들의 요구도 변화하여 대학에서 연구자들의 선호도 또한 인쇄형 자료에서 전자저널과 web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전자자원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전자자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도서관이 수집해야 할 정보자원은 다종다양해졌으며, 장서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도 매우 복잡해졌다.

전자자원의 개발에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구매와 예산, 라이선스, 이용과 통계, 저작권, 보존, 구현, 직원 업무, 이용자 교육, 통계, 기술적 문

<표 1> 최근 3년간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구입비율¹⁾

구분	총자료구입비(백만원)	전자자료구입비(백만원)	전자자료구입비율(%)
2010년	214,811	98,321	45.8
2011년	232,874	116,078	49.8
2012년	236,509	131,145	55.5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2012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101.

제 등 예전에는 장서개발 업무에서 다루지 않던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에는 '사용용이성, 접근가능성, 벤더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의 종류, 필요한 하드웨어와 장비, 직원과 이용자 교육, 기술적 문제, 인터페이스, 지속성, 보존, 검색 속도와 기능, 라이선스' 등이 포함된다. 또한, White & Crawford(1997)는 '장비, 공간, 다른 자원과의 교환, 기술적 지원, 벤더 지원'의 문제로 인해 전자자원의 선정이 인쇄 자료의 그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수립된 기존의 장서개발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 편성된 인쇄자원 기반의 장서개발정책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다양한 전자포맷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자관의 서버에 구축된 전자자원과 링크, 미리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원격 자원 모두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자원관리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제로 해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과 상당수의 대학 및 공공도서관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장서개발정책과 전자자원에 관한 장서개발정책을 분리하여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전자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전자정보원의 비중 증가, 그리고 이용자 요구의 변화 등에 따라 대학도서관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자원관리정책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자원관리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전자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고찰하였다. 전자자원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장서개발정책의 개념과 기능 등을 정리한 후,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와 미국의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자원관리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 대상은 전자자원관리정책 가이드라인과 대학도서관의 실제 전자자원관리정책 사례 그리고 관련연구들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전자자원관리정책 가이드라인은 IFLA의 『전자자원장서 개발 가이드라인』(Key Issues for e-Resource Collection Development: A Guide for Libraries)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는 전자자원의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 또는 전자자원의 선정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는 네 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리뷰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전자자원관리정책 사례는 ARL 통계(2012) 순위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ARL 통계상 장서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관들 중 인터넷에 장서개발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14개 관과 장서개발정책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3개

관을 제외한 후 나머지 21개관을 대상으로 전자자원관리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리스트체킹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구성요소들의 중복 편성도를 확인하여 백분율로 표시하고 이들을 순위화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의 대학도서관을 상정하여 전자자원관리정책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내외 연구동향

서구의 도서관계에서는 오랫동안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예를 들어 Snow(1996)는 성문화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정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공개한 즉시 다시 시대에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는 대신에 장서의 선정과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도서관과 전자자원에도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근거는 주로 도서관의 장서개발 과정에서 수집해야 할 자원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전자자원관리정책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Hazen(1995)은 전통적인 장서개발정책은 정적이어서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로 장서개발정책은 모든 정보 포맷과 자관의 자원과 원격 자원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van Zijl(1998)은 장서개발정책이 포함해야 할 요소, 모든 유형의 장서에 적용되는 기준, 전자자원에 적용되는 기준,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수립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Vickery(2004)는 선정, 계획, 홍보,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 등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출판, 선정, 수집에 있어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White와 Crawford(1997)는 사서의 의사결정을 돕고 교수와 학생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장서개발정책과 전자자원관리정책을 통합할 것인지 혹은 분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도 적지 않은데, Demas(1994)는 기존의 장서개발정책에 전자자원관리정책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장서개발정책을, Hazen(1995)은 별도의 전자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rrigan(2005)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서개발정책을 게시하는 도서관 사례와 웹 기반 장서개발정책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한 바 있다.

전자자원의 경우, 전자책이나 전자저널뿐 아니라 인터넷과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수집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Pitschmann(2001)은 인터넷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인쇄와 무료 웹 자원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무료 웹 자원의 성질과 복잡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Latham(2002)은 도서관은 웹사이트를 식별하고 선정할 때, 자관의 웹 페이지에 선정한 웹

사이트를 연결시킬 때 가치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때 인쇄자원의 장서개발에 사용하는 정책과 같은 종류의 정책을 통해 그 판단이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장덕현(200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자자원의 개발과 관리정책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초기의 연구들은 국내외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였지만, 전자자원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는 못하다.

인쇄자원의 장서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이란주(2005)는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10가지 항목을 사용하여 국가도서관 5곳과 공공도서관 2곳을 분석한 후, 국내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위한 5가지 지침을 제안하였고, 유재욱(2003)은 대학도서관에서 디지털장서를 구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윤희운과 장덕현(2011)은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2.2 전자자원의 정의와 유형

전자자원(electronic resource)은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온라인을 통하여 또는 물리적 포맷으로 접근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부호화되고 생산된 저작으로 정의된다. 전자자원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검색성이 높으며, 외부로부터의 원격 접근과 동시접속, 동시이용이 가능하다. 파일간 복제와 전송이 용이하고 음성, 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로 변환도 가능하다. 물리적 매체의 경우 발생하는 절도와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자원에 포함된 내용을 무단으로 추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제본과 보존, 서고 관리에 드는 비용이 감소되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문서 내에서의 이동과 인용에서 원문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자원에 대한 접근에 시간제한이 없다. 반면, 기술적 문제와 장비에 대한 비용, 접근의 형평성(equity), 저작권과 보안, 서지 통제, 색인, 아카이빙, 라이선스, 이용자 교육, 권위, 질, 정확성, 불안정성, 변하기 쉬움(mutability), 정보의 이동성(mobility) 등에 있어서는 과제가 남아있다(Johnson 2009).

전자자원은 급속히 변화하며, 전자자원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적 요건 등 별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도 높다. 전자자원 이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와 기술 또한 인쇄자원의 그것들과 다르며,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 따라서 적절하게 수립된 전자자원관리정책은 전자자원의 유형과 기술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정의하여 사서와 이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전자자원관리정책은 벤더와 저작권, 공정이용(fair use), 영속적 접근(perpetual access)과 아카이빙 문제 등 전자자원관리 업무 측면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자자원의 가격이 인쇄자원보다 월등하게 높고, 가격책정 방식 또한 복잡·다양하여 예산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자원관리정책은 예산 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사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3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정책은 일반적으로 장서의 범주와 수준, 선정의 책임, 예산, 그리고 제적 및 폐기의 원칙 등 다양한 이슈들을 언급한 문서이다. 장서개발정책의 목적은 도서관장서의 강점과 미진한 점을 명시하고 장서개발의 책임과 예산분배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열과 무분별한 기증, 외부 압력으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도서관 내·외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며 장서개발에서 개인의 선입견을 최소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Johnson 2009).

Evans(2005)는 장서개발정책의 요소를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우선 개요 부분으로 기관의 목적, 이용자 커뮤니티의 정의, 장서의 특징 등에 대해 다룬다. 두 번째는 수집되는 주제 분야와 포맷에 대한 세부사항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컨스펙투스(Conspectus)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수준과 자료 선정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며 선정의 책임사항에 대해 다룬다. 세 번째는 다양한 이슈를 언급하는 부분으로 기증, 제적과 폐기, 평가, 검열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과 이용자 불만 관리 원칙 등에 대해 다룬다.

이렇듯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장서의 성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장서개발정책이 전자자원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자자원 '관리'라는 용어를 정의하는데 있어

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책의 대상을 실물자료로 할 경우 가장 많이 통용되는 용어는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이다. 하지만, 장서관리론 분야에 있어서 개발(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등장한 개념으로 비도서자료와 일회성자료 등 그 이전까지 도서관 자료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료들도 사서가 '개발'하기에 따라서 도서관의 자료화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그 함의는 현실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 자원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소멸하게 되는 자료들이 사서의 개입 여부에 따라 도서관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전자자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개발에 의한 소장(Ownership)의 개념이 전자자원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리(Management)의 개념으로 변화한 것이다.

3. 전자자원관리정책 구성요소 도출

3.1 구성요소 도출

3.1.1 전자자원관리정책 가이드라인

IFLA가 2012년에 발표한 전자자원장서 개발 가이드라인(Key Issues for e-Resource Collection Development: A Guide for Libraries)이 제시하고 있는 전자자원 관리정책 핵심 요소들은 <표 2>와 같다.

3.1.2 관련 연구

다음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와 전자자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표 2〉 IFLA의 전자자원 관리정책 핵심 요소와 기준

항목	내용
기술적 고려사항	접근가능성(availability-remote access)
	보안 및 접근방법(IP 필터링 또는 로그인)
	H/W, S/W 사용성
	축적 및 관리용이성(remote hosting/ local hosting)
	플랫폼
기능성과 신뢰성	검색성능
	업로드 및 다운로드 성능
	분류(sorting) 및 랭킹 메커니즘과 성능
	인터페이스
	시스템 통합(integration)
벤더	안정성, 24시간 사용성
	고객지원 및 교육
	시범운영(trial), 데모 지원
	기술지원
	통계보고 기능
	개인화(customizing)
가격요소	서지데이터 제공
	데이터 안정성과 아카이빙 정책
	구입 또는 구독방식(subscribe, PPV, rental)
	가격책정 방식
	동시이용자 제한 여부
	구독중지 후 접근권
라이센싱	관리비용
	구독중지 권한
	표준라이센스 조건
	관련 조항
	책임규정
	이용자 범주(authorized users) 규정
	이용장소 제한(authorized sites) 규정
	공정이용(fair use)
	구독취소
반품	
계약기간	
준법사항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요소로 언급되어 있는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우선 Demas(1996)가 제시한 전자자원을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5가지

구성요소와 12가지 쟁점을 추출하였다. White와 Crawford(1997)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제

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전자자원 또는 인쇄자원 가운데 어떤 포맷을 구매할지에 대한 결정을 돕고 매체의 수명, 자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장비, 기술적 지원의 이용 가능성과 같은 전통적인 선정과는 다른 특징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들은 복본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 포맷으로 구매하기를 선호하는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에서 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Johnson(2009)은 전자자원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부가적인 기준과 전자자원 사이에 그리고 전자자원과 인쇄자원 사이에서 평가하고 선정할 때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Pitschmann(2001)은 맥락, 내용, 형식과 이용, 처리와 기술의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자자원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또한 전자자원관리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포함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3.2 구성요소 검증 및 순위화

IFLA의 전자자원관리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예비 구성요소들을 미국의 주요대학 도서관의 전자자원관리정책(장서개발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과 비교하여 각각의 요소들이 포함되

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ARL 통계에 나타난 장서보유 규모를 기준으로 38개의 상위 대학 도서관²⁾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도서관들 중 인터넷에 장서개발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 14개 관과 장서개발정책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3개 관을 탈락시킨 21개 관을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요소에 대하여 각 도서관의 전자자원관리정책에 포함된 수에 따라 백분율로 정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순위화 하였다.

순위화 결과, 전자자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집범주와 수집대상 자료의 주제와 내용, 학과 커리큘럼 등 선정범주(selection criteria)와 관련된 요소들의 편성도가 높아, 선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실제 사례에서도 관련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저작권, 라이선스, 컨소시엄, 그리고 교육 등에 관한 요소를 편성한 경우도 전체 대학도서관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전자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자원 수집과 이용의 책임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매우 높게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벤더에 대한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벤더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평가표들은 각 대학도서관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 결과는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대상 대학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Harvard U, U of Illinois-Urbana-Champaign, Yale U, UC Berkeley, Columbia U, U of Michigan, U of Texas-Austin, U of Chicago, UCLA, Indiana U, U of Wisconsin-Madison, Cornell U, Princeton U, U of Washington, U of Minnesota, U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U of Pennsylvania, Duke U, Ohio State U, U of Pittsburgh, U of Arizona, U of Oklahoma, Michigan State U, U of Virginia, U of Iowa, Penn State U, NYU, Northwestern U, U of Georgia, Rutgers U, U of Colorado, Texas A&M U, Arizona State U, U of Florida, U of Cincinnati, North Carolina State U, Washington U, U of Kansas.

〈표 3〉 구성요소 종합

번호	요소	설명	%	순위
1	개요	- 대학의 사명과 목적, 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 도서관의 전자자원 컬렉션 구성, 배경과 역사, 특징 등	84	15
2	목적	- 전자자원관리정책의 목적 - 정책의 취지와 적용범위	92	4
3	용어 정의	- 전자자원관리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정	74	31
4	타 정책과의 관계	- 대학 및 도서관의 기타정책과의 관계	70	35
5	인쇄자원과의 관계	- 인쇄자원과의 관계 - 인쇄저널의 유지 및 폐기 기준	79	23
6	이용자 정의와 정보요구	- 서비스 대상 이용자 그룹의 성격 - 정보요구 조사의 형식과 방법	78	27
7	정책의 책임사항	- 전자자원관리정책의 책임사항 한정	75	30
8	업무의 책임사항	- 전자자원관리 업무 담당부서 및 책임사항	79	23
9	수집범주	- 수집대상 전자자원의 범위	96	1
10	학과와 커리큘럼	-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	87.5	8
11	언어	- 수집대상 및 수집제의 언어	78	27
12	주제	- 수집 주제범위	95	2
13	내용	- 내용의 정확성, 보편성, 완전성, 독창성	93	3
14	기능성	- 응답시간, 화면 디자인, 인터페이스, 키워드 등	81	21
15	포맷	- 포맷의 적절성 및 고려사항	83	17
16	권위	- 출판사, 벤더, 저자의 권위	82	19
17	비용	- 예상 비용, 업데이트, 백업 비용	84.5	14
18	선정도구	- 서지, 서평, 목록 등 구체적 선정도구	77	29
19	수집수준	- 전자자원 수집수준 - 컨스펙터스 제시	80	22
20	복본	- 복본 수집 기준 - 인쇄자원과 전자자원의 복본 수집 및 부가적 라이선스	71.5	34
21	대체	- 기존자원의 전자자원 대체 기준	81.5	20
22	디지털 변환	- 디지털화 기준	79	24
23	아카이빙	- 아카이브 방식과 접근권	86.5	10
24	접근	- 접근 매체와 방법, 인증방식, 접근 수준	82.5	18
25	기술적 문제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네트워크 등	79	24
26	수집유형	- 기증, 구입, 구독, 제작, 협력 등 수집방법 구분	85	12
27	유지 및 갱신	- 전자자원의 접근, 유지, 폐기, 제적, 갱신, 구독취소 기준 및 주기	87	9
28	예산	- 사용되는 자금 및 예산분배 기준과 원칙	84	15
29	라이선스	- 라이선스 계약 조건	89.5	6
30	컨소시엄	- 참여 컨소시엄 종류와 조건	85	12
31	벤더	- 벤더 평가 범주	72	33
32	홍보	- 전자자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책임	86	11
33	교육	- 이용자와 직원 교육 주기와 방법	88	7
34	수집요청 절차	- 전자자원 수집 요청 방법, 절차와 형식	80	22
35	저작권과 지적자유	- 저작권법 준수 관련 사항	90	5
36	개정 계획	-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개정 일정	67	36

4.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

앞서 도출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의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하 가상의 A대학 도서관을 상정하여 제안하는 전자자원관리정책의 구성요소는 각 도서관의 목적과 상황에 맞도록 요소들을 재편성하고 순서를 조정하여 전자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자자원관리정책 모형은 다음과 같다.

4.1 개요

4.1.1 전자자원관리정책 개요

이 정책은 우리대학교도서관에 있어서 전자자원의 선정, 수집, 관리, 보존 및 폐기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룬다. 전자자원이 지닌 다양한 장점에 근거하여 현재 도서관은 전자자원의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새롭게 추천된 전자자원은 전자자원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수집을 결정한다.

도서관은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자원을 수집하며, 개인과 학과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우리 대학의 모든 교수, 학생, 직원들이 모든 유형의 전자자원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역단위의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 ○○○, ○○○이며, 이 컨소시엄 참여 또는 협력 장서개발에 추가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4.1.2 목적

전자자원은 교육, 연구, 봉사라고 하는 대학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수집, 관리된다. 이 정책의 목적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지원을 위한 전자자원 관리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전자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기존의 장서개발정책과는 별도로 전자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정책은 전자자원의 선정과 수집, 접근 조건 등 보완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4.1.3 용어 정의

이 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자원”은 컴퓨터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 구입, 구독되는 정보원을 의미한다. 전자자원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거나, 혹은 도서관이 사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원격으로 접근 가능한 파일과 다양한 저장 매체에 존재하는 파일을 포함한다.
- ② “원격 접근”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자원의 이용을 의미한다.
- ③ “직접 접근”은 컴퓨터의 입력 장치를 통해 사용하도록 제작된 매체(예: CD 등)를 통한 전자자원의 이용을 의미한다.
- ④ “접근(Access)”은 전자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일반적으로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혹은 기억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탐색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2) 이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을 시도하는 것이다.

- ⑤ “물리적 포맷”은 물리적 매체로 출판된 실체가 있는 객체(tangible objects)로 아날로그 전자자원(예: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과 디지털 전자자원(예: 플로피디스크, CD-ROM, DVD) 모두를 포함한다.
- ⑥ “온라인 전자자원”은 웹으로 출판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디지털 자원이다. 온라인자원은 하이퍼텍스트 또는 선행텍스트로 된 자원을 망라하여 ‘출판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무료이든 유료이든, 웹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⑦ “디지털화된 전자자원”은 디지털화(digitization) 프로젝트의 결과로 제작된 전자자원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진, 그림, 지도, 악보, 책, 구술, 신문, 기타 간행물의 디지털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⑧ “수집(Acquisition)”은 도서관이 구매, 기증, 교환, 저작권 기탁과 양도 등의 공식적 입수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도서관이 계약, 라이선스, 기타 공식적 동의를 통해 원격 또는 직접 접근을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물리적 전자자원의 입수과정을 의미한다.

4.1.4 다른 정책과의 관계

전자자원의 구입은 기존의 장서개발정책의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전자자원은 도서관의 주제 별 장서개발정책에서 명시한대로 동일한 주제, 연대, 지역, 언어, 출판시기와 기타 가이드라

인에 충실해야 한다.

4.1.5 인쇄자원과의 관계

전자자원과 인쇄자료가 동시 입수될 경우에 인쇄본과 전자본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본의 보존연한은 ○년으로 한다. 다만 학과 및 분야별로 JCR의 피인용반감기를 고려하여 보존연한은 조정할 수 있다. 인쇄본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협동장서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예: FRIC 등) 등의 DDS(Document Delivery Service)를 통하여 제공한다.

4.1.6 이용자와 정보요구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수, 학습, 연구, 창작 및 기타 생활적 정보요구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은 그 직과 등록상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동문, 협력 이용자 등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4.1.7 정책의 책임사항

담당사서: 전자자원관리팀 ○○○
주소: 중앙도서관 1층 장서개발과
전화: 000) 000-0000

전자자원관리팀의 책임은 담당주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조사, 자료의 이용가능성 조사, 전자자원 선정 및 수집, 접근방법 제공 및 관리,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이다. 각 업무별 분장과 책임사항은 아래와 같다.

업무	책임사항
평가, 선정, 수집, 갱신	전자자원개발위원회와 장서관발팀이 서로 조정, 협의한다. 전자자원의 이용자 통계는 공급자 (vendor)로부터 제공받는다.
전자자원의 표현, 관리	도서관이 관리하는 모든 전자자원은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웹페이지는 기술지원 팀에 의해 관리된다.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도서관 시스템은 기술지원팀에 의해 관리되며 전자자원에 대한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페이스의 관리는 기술지원팀과 전자자원관리팀이 협력하여 맡는다.
직원과 이용자 교육	교육 담당 사서는 대학의 모든 교수, 학생, 직원을 위해 벤더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홍보와 마케팅	기획과 커뮤니케이션 담당 사서는 이메일, 도서관 뉴스, 개별 연락을 통해 홍보와 마케팅을 관리한다.

4.1.8 수집대상과 범주

대상	범주
전자저널	인쇄저널과 마찬가지로 전자저널은 장기간 관리, 유지된다. 도서관은 원문저널일 때만 전자저널을 구독하며, 수집 범주는 아래와 같다 - 기존 인쇄 구독의 패키지 - 구독 인쇄저널의 무료 웹 버전 - Online-Only 저널 * 인쇄저널의 구입 및 보존은 주제별 핵심저널에 한정한다
전자책	vendor 플랫폼 구입 전자책DB의 경우 요구에 따라 개별구입
서지데이터베이스	주요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CD-ROM 및 멀티미디어	- CD ROM은 유일본인 경우에만 수집한다 - 인쇄자료의 딸림자료로 등록되는 CD-ROM은 기존 장서관발정책의 관련 조항을 따른다 - DVD는 수집대상에 포함한다 - 웹 기반의 멀티미디어는 관련성에 따라 수집한다
웹사이트	- 웹사이트는 도서관 장서의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수집된다 - 대학도서관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수집 범위에 적합한 서지자료, 전문(fulltext), 수치 데이터, 그래픽과 멀티미디어 파일을 수집한다 - 코스웨어와 멀티미디어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은 대학 내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코스웨어에 대한 사이트 라이선스를 수집하지 않는다

4.2 선정요건

4.2.1 선정기준

- ① 학과와 커리큘럼: 학과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교과과정 개정에 관

하여 담당사서(liaison)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언어: 한국어 된 전자자원을 우선 수집한다. 그 밖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전자자원을 수집하며, 프랑스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전자자원은 요구가 있을 경우 수집한다. 무료 또는 오픈 액세스형 전자자원은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③ 주제: 최신의 주제와 역사성이 있는 주제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④ 내용: 내용의 충실성, 정밀성, 정확성 등을 고려한다.
- ⑤ 기능성: 접근성과 S/W, H/W 사용성을 고려한다.
- ⑥ 포맷: 현재 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포맷이어야 하며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 ⑦ 이용자 요구: 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이용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 ⑧ 자원의 권위 :출판사와 벤더, 저자의 권위를 고려한다.

⑨ 가격조건: 예산범위 내에서 구독비용, 유지비용, 처리비용 등을 고려한다.

4.2.2 선정도구

주제 중심의 비평 자료와 서평지뿐만 아니라, 주제 전문가는 전자자원에 대한 서평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정보원(데이터베이스 백서, Gale Directory of Databases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2.3 수집수준³⁾

도서관은 전자자원 수집의 수준을 정하는 도구로 RLG-OCLC의 컨스펙터를 활용한다. 전자자원의 유형에 따른 수집수준은 주제분야와 전자자원의 안정성에 따라 아래의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정한다.

	level 0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1a	1b	2a	2b	3a	3b	3c		
수집제한										
서지도구										
참고자료 / 포털										
링크수집										
라이선스 수집										
미러수집										
UCC (User-created contents)										
저장/축적된 자원										
아카이빙자료	기관레포지토리(IR) 수집									
	셀프아카이빙 (Open Access)									

3) 전자자원 수집 수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덕현, 2009.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31-44 참조.

4.2.4 복본

도서관은 요구와 이용이 많은 자원에 대해 복본을 구매할 수 있다. 전자자원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하는 자료는 예상되는 요구와 이용 가능한 예산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만약 충분한 이용자 요구가 있다면, 부가적인 라이선스가 수집된다.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자자원의 복본을 구매하거나 전자 포맷으로 인쇄자료의 복본을 구매할 수 있다.

- 자원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닐 때
- 현재 수집하고 있는 포맷이 불안정할 경우
- 다수의 포맷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 아카이브 된 포맷을 이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4.2.5 대체자료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모든 주어진 자료를 한 가지 포맷으로 수집한다. 인쇄 구독본의 복본은 전자자원을 통한 아카이빙에 따라 최소화한다. 이 때 자원에 대한 요구, 비용, 출판사와 벤더로부터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4.2.6 디지털 변환(digitization)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인쇄 형태 자료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디지털화(digitiz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축적한다. 이 때 도서관은 자원의 저작권과 라이선스, 자원에 대한 요구, 역사적 중요성, 자원의 유일성, 변환에 필요한 비용, 또 다른 포맷에서 정보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한 후에 변환하도록 결정한다.

4.2.7 아카이빙

도서관은 전자자원의 장기간 영속적 보존(Perpetual Access)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관련된 국가정책에 책임을 분담한다.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미래의 이용가능성, 비용, 제한과 접근가능성, 저장공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4.2.8 접근

모든 전자자원은 도서관 온라인 목록과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은 전자자원에 대해서 원격 웹 접근과 오프라인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 제공한다. 공정이용을 위하여 캠퍼스 권한 부여, 인증, 벤더 기반 IP 인증을 사용한다. 특정한 자원을 선정하기 위한 결정은 예상되는 이용, 라이선스 계약, 로컬 또는 원격의 지원 서비스, 기타 접근 이슈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는 캠퍼스에서와 원격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도서관은 서비스의 수준과 관련하여 전자 자료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학생, 교수, 직원에게 가능한 폭 넓고, 알맞은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자원이 요청될 때, 주제 사서는 접근의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4.2.9 기술적 문제

적절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입수가능성은 선정 절차동안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도서관은 특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요구하지 않는 전자자원을 선정한다. 특히, 디지털 도구(인터넷 브라우저를 포함하여 기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의 기술적 호환성, 기술적 지원 능력, 응답 시간과 원격 통신, 서버의

신뢰성 등)를 평가할 때, 다양한 기술적 고려사항들을 염두에 둔다.

4.2.10 수집유형

도서관은 제작, 구독, 구입, 납본, 협력 등의 방법으로 전자자원을 개발한다.

4.2.11 유지와 갱신

도서관은 또한 자원의 이용 수반되는 유지 및 보수, 그리고 접근성의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용자 통계를 연구한다. 주요 통계는 아래와 같다.

- 저널의 비용
- JCR Impact Factor 와 Cite Half-Life
- 주요 서지DB 포함 여부
- 인터넷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제적한다.
 - a. 해당 인터넷 정보자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유지되지 않는 경우
 - b. 정보자원의 최신성과 신뢰성이 그 가치를 상실한 경우
 - c.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정보자원이 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3 행정사항

4.3.1 예산

도서관 자료 예산은 네트워크형 전자자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포함한다. 전자저널의 벤더 패키지 또한 분리된 디지털 자원 예산으로 구매된다. 개별 전자저널 구독 또한 개별 주제 정기 간행물 예산으로 구매된다.

4.3.2 저작권

도서관은 현행 저작권법과 디지털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3.3 라이선스

도서관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접근권을 구매한다. 라이선스협상을 할 때, 도서관은 이용자의 관심을 염두에 두며 최대한 이용이 제한점이 없도록 협상을 한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범위 대학의 학생, 교수, 직원과 모든 도서관 현지 방문자를 포함한다.
2. 위치(Site)는 대학 내의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며, 모든 캠퍼스를 포괄한다.
3. 권한 증명을 위하여 IP 방식 또는 로그인/패스워드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4. 가격 책정은 FTE, 동시접속 이용자 수, 이용량, 등을 기반으로 협상하거나 정액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공정 이용" 규정 또는 저작권법은 모든 포맷에 적용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2.0(<http://www.freeuse.or.kr/htm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www.creativecommons.or.kr/>), 저작권법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전자자원의 구매는 그 정보에 대한 영속적 접근(perpetual access)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은 분명하게 아카이브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4.3.4 컨소시엄

도서관은 전자자원 접근을 위한 컨소시엄 계

약에 참여한다. 현재 도서관은 벤더와의 구매 계약을 이용하기 위해서 KESLI와 ACE 등 국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단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4.3.5 벤더

벤더는 다음의 범주에 따라 평가한다.

- 평판(Reputation)와 재정적 안정성
- 어그리게이터(Aggregator)인 경우 포함하는 출판사(Publisher Coverage)
- 일괄주문(Approval Plan) 지원 여부
- 기술적 우수성
- 신뢰성: 계약 실적 및 히스토리 분석
- 행정처리 능력 및 통계 제공 여부
- 고객 지원 및 교육 지원
- Trial 제공, 라이선스 협의 가능성
- 인보이싱, 반품 절차 클레임 처리 절차 등

4.3.6 교육과 홍보

홍보 담당 사서는 새롭게 입수된 전자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와 벤더의 사이에서 전자자원 활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서관과 벤더 및 출판사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한다.

4.3.7 개정 계획

이 정책은 디지털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 시기의 검토는 전자자원관리 책임자의 요청으로 전자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결론

장서는 사서의 전문적인 활동에 의하여 의도적, 체계적, 망라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자신이 그린 설계도상의 선 하나하나에 책임을 지듯이 사서는 자신이 선정, 수집한 자료 각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장서는 당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개발(develop)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서개발은 성문화된 계획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장서개발의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장서개발정책은 체계적인 장서구성의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인 장서개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이 수집하는 자료의 유형과 양은 상상하지 못한 정도로 다양해지고 증가하였으며, 대학도서관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도서관이 수집하는 정보자원의 대다수는 전자자원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장서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 또한 매우 다양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IFLA의 전자자원관리정책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예비 구성요소를 토대로 실제 미국의 대학도서관 전자자원관리정책에서의 편성 여부를 조사하여 중요도를 나타내고, 이를 근거로 가상의 대학을 상정하여 전자자원관리정책의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수집범주와 수집대상 자료의 주제와 내용, 학과 커리큘럼 등 전통적인 요소들의 편성정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책임 관련 요

소와 컨소시엄, 교육 등 전자자원 관리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벤더에 대한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벤더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요소별 중요도를

토대로 전자자원관리정책의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전자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유재욱. 2003. 대학도서관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4(1): 123-140.
- [2] 이란주. 2005.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3-224.
- [3] 장덕현. 2009.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터스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31-44.
- [4] 윤희윤, 장덕현. 2010.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07-122.
-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2. 『2012 대학도서관 통계분석 자료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6]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2010-2011*, 2012.
 <<http://publications.arl.org/ARL-Statistics-2010-2011>>.
- [7] Clayton, Peter, & Gorman, G. E. 2002. "Updating conspectus for a digital ag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6(3): 253-258.
- [8] Corrigan, Andy. 2005. "The collection policy reborn: a practical application of web-based documentation." *Collection Building*, 24(2): 65-69.
- [9] Demas, Samuel, McDonald, Peter, & Lawrence, Gregory. 1996. "The Internet and Collection Development: Mainstreaming Selection of Internet Resourc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39(3): 275-290.
- [10] Evans, G. Edward, & Saponaro, M. Zarnosky. 200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5th ed. Westport, Connecticut: Libraries Unlimited.
- [11] Hazen, Dan C. 1995.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Information Ag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6(1): 29-32.
- [12] IFLA. Key Issues for e-Resource Collection Development: A Guide for Libraries.
 <http://www.ifla.org/files/assets/acquisition-collection-development/publications/IFLA_ELECTRONIC_RESOURCE_GUIDE_DRAFT%20FOR%20COMMENT.pdf>.
- [13] Johnson, Peggy. 2009. *Fundamentals of collection development & management*. 2nd ed.

-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14] Latham, Joyce M. 2002. "To Link, of Not To Link." *Library Journal*, 127(7): 20-22.
- [15] Pitschmann, Luis A. 2001. *Building Sustainable Collections of Free Third-Party Web Resources*. Washington, D.C.: Digital Library Federation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 [16] Snow, Richard. 1996. "Wasted Words: The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the Academic Library."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2(3): 191-194.
- [17] van Zijl, Carol. 1998. "The why, what, and how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South Afric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66(3): 99-106.
- [18] Vickery, Jim. 2004. "Making a statement: reviewing the case for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Library Management*, 25(8/9): 337-342.
- [19] White, Gary W., & Crawford, Gregory A. 1997. "Developing and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llection Building*, 16(2): 53-5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Yoo, Jae Ok. 2003. "A Study on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4(1): 123-140.
- [2] Lee, Lan Ju. 2005. "A Study of Guidelines for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203-224.
- [3] Chang, Durk Hyun. 2009. "A Study on a Revised Conspectus Model for the Assessment of Electronic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31-44.
- [4] Yoon, Hee Yoon, & Chang, Durk Hyun. 2010.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4): 107-122.
- [5]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2. *Academic Library Statistics 2012*.